스위스 정부관광청이 엄선한 최고의 파노라마 기차 루트 10선.

기차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는 중년 여행객에게도,
나홀로 떠나는 스위스 기차여행을 원하는 젊은 여행객에게도,
스위스 파노라마를 만끽하는 최고의 방법, 스위스 파노라마 기차

"꽃보다 할배"로 인해 중년 여행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기차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는 중년 여행객들은 항공편 보다 기차를 더 선호한다고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럽 여행 스타일은 '혼자 하는 스위스 기차 여행'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유럽 여행에서 기차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창 밖으로 펼쳐지는 멋진 풍경과 여행의 낭만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 스위스의 파노라마 기차만큼 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체험을 선사하는 기차 여행도 없다.

2014년 스위스 정부관광청은 '파노라마의 해'를 맞이해 스위스 트래블 시스템(Swiss Travel System)과 함께 여행자들이 스위스 최고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테마 상품을 소개한다. 그림같은 산 봉우리와 야자수가 줄지어 있는 호숫가 풍경부터 웅장한 폭포와 빼곡한 숲까지, 다채로운 풍경과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 스위스 정부관광청과 스위스 트래블 시스템이 엄선하여 선정한 최고의 파노라마 기차 루트 10선은 모두 스위스 패스로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알차다.

1. 빙하특급 Glacier Express

체르마트(Zermatt) – 생모리츠(St. Moritz)
엥가딘(Engadine) 계곡과 마터호른(Matterhorn) 봉우리를 7시간 반만에 이어주는 파노라마 기차다. 물론 더 빠르게 이동하는 기차편도 있지만, 빙하특급보다 더 알프스 깊숙한 속살을 보여주는 기차는 없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특급열차이자 가장 유명한 관광열차 중 하나로 꼽히는 빙하특급은 스위스 알프스의 가장 패셔너블한 스키 리조트 두 곳인 생모리츠(St. Moritz)와 체르마트(Zermatt) 사이를 달리며 알프스 심연의 깊은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91개의 터널과 291개의 다리를 지나는 빨간 기차는 400m 깊이의 라인(Rhine) 계곡과 2033m 높이의 오버알프 고개(Oberalp Pass), 마터호른(Matterhorn) 봉우리 등 수많은 하이라이트를 보여 주어 지루할 틈이 없다. 웅장한 절벽과 크리스탈같은 산정 호수, 산 속 깊이 소담히 자리한 마을의 풍경 등 그림같은 파노라마가 이어진다.

빙하특급이 무엇보다도 특별해지는 순간은 바로, 식사시간이다. 앉은 자리에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파노라마를 감상하며 와인을 곁들인 3코스 런치를 즐길 수 있다. 오늘의 메뉴는 CHF 30, 3코스 런치는 CHF 43이다. 와인과 커피, 각종 음료는 어느 때고 주문할 수 있다.

소요시간:
체르마트(Zermatt)-생모리츠(St. Moritz): 7시간 45분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요금:
스위스 패스 소지시 무료.
예약비: 여름 CHF 33 / 겨울 CHF 13 (예약 필수)
Glacier Express
Bahnhofplatz 7
CH-3900 Brig
Tel. +41 (0)84 864 24 42
Fax +41 (0)27 927 77 79
info@glacierexpress.ch
www.glacierexpress.ch

2. 베르니나 특급 Bernina Express

쿠어(Chur)/다보스(Davos) – 티라노(Tirano)

베르니나 특급은 설국의 엥가딘(Egadine) 계곡과 남국의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알프스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파노라마 기차다. 짐작이 되듯 높은 고도차로 인해 가파른 철도를 무리없이 여유롭게 내려간다.

베르니나 특급은 알프스를 관통하며 짜릿한 파노라마를 선사하는데, 쿠어를 출발한 새빨간 열차는 엥가딘 계곡을 향해 오르다 2253m 높이의 베르니나 호스피츠(Bernina Hospiz)부터 포스키아보(Poschiavo) 계곡을 지나 이탈리아의 발텔리나(Valtellina)까지 하강 곡선을 그리며 아름다운 여정을 이어간다. 특히 나선형으로 이어지는 하강곡선이 베르니나 특급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필리수르(Filisur) 근교에 있는 65m 높이의 고가인 란트바써 비아둑트(Landwasser viaduct)이다. 곡선으로 이어지는 고가를 달리는 동안 기차의 머리나 꼬리가 터널 속으로 사라지는 그림같은 풍경을 목격할 수 있다. 55개의 터널과 196개의 다리를 지나며 톱니바퀴 시스템이 아닌 가파른 일반 철도를 잘도 달린다. 투지스(Thusis)와 티라노(Tirano) 사이의 알불라(Albula)와 베르니나 라인(Bernina Line)은 2008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놀라운 파노라마를 보여준다. 특히 쉰(Schyn) 계곡과 모르테라취(Morteratsch) 빙하, 브루지오(Brusio) 나선형 고가가 감탄을 자아낸다. 저너머로 보이는 빙하의 풍경도 베르니나 특급이 가져다 주는 놀라움 중 하나다. 식당칸은 없지만, 이동 스낵 차량에서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구입할 수 있다. 중간역인 알프 그륌(Alp Grüm)에서 정차하여 역 식당에서 퐁뒤를 즐겨도 낭만적이다. 여름에는 베르니나 익스프레스 버스(Bernina Express Bus)가 티라노와 루가노(Lugano)를 연결하여 주기 때문에 생모리츠에서 스위스 이탈리아권으로 이동하기 좋다.

소요시간:
쿠어(Chur)-티라노(Tirano): 4시간 05분

다보스(Davos)-티라노(Tirano): 3시간 50분
생모리츠(St. Moritz)-티라노(Tirano): 2시간 30분

요금:
스위스 패스 소지시 무료.
예약비: 여름 CHF 14 / 겨울 CHF 10 (예약 필수)
베르니나 익스프레스 버스 예약비: CHF 14

Bernina Express
CH-7002 Chur
Tel. +41 (0)81 288 65 65
info@rhb.ch
www.berninaexpress.ch

3. 골든패스 라인 GoldenPass Line

몽트뢰(Montreux) – 츠바이짐멘(Zweisimmen) - 인터라켄(Interlaken) – 루체른(Luzern)
스위스의 불어권과 독어권을 이어주는 낭만적인 파노라마 기차로, 호수와 초록 들판, 전나무 숲 등 로맨틱한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골든패스 라인에 올라타는 것은 짧은 휴가를 떠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루체른을 떠난 기차는 마법에 걸린 듯한 호수와 산의 파노라마를 보여준다. 새롭게 단장한 루체른-인터라켄 익스프레스 기차가 여유롭게 브뤼니크 고개(Brünig Pass)를 오른다. 고도를 상승하며 달리던 기차는 마이링엔(Meiringen)에서 하강하기 시작해 브리엔쯔(Brienz) 호수까지 낭만적인 풍경을 보여 준다. 기스바흐(Giessbach) 폭포의 장관을 감상하며 인터라켄(Interlaken)으로 향하게 되는데, 인터라켄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툰(Thun) 호숫가를 달린다. 세 번째 기차편이 츠바이짐멘(Zweisimmen)에서 기다리고 있다. 글래머러스한 리조트 마을, 그슈타드(Gstaad)를 지나고, 하강 곡선을 그리며 포도밭의 정겨운 풍경을 보여주다가 레만(Léman) 호숫가의 고즈넉한 마을, 몽트뢰(Montreux)로 여정이 이어진다. 몽트뢰와 츠바이짐멘 구간에는 미니바가, 인터라켄 오스트와 루체른 구간에는 식당칸이 있어 달콤한 간식이나 구수한 점심을 즐기기 좋다. 보다 특별한 체험을 원한다면 몽트뢰에 츠바이짐멘 구간 열차에서 VIP석을 이용해 보자. 운전석의 앞 유리를 파노라마형으로 개조하고, 운전석은 2층에 마련하여 VIP석에서 전면으로 펼쳐진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몽트뢰와 츠바이짐멘 구간을 연결하는 기차 중에는 골든패스 클라식(GoldenPass Classic) 차량이 있는데, 1930년대의 벨에포끄 양식의 인테리어가 마치 파리의 살롱에 와 있는 듯한 기분에 젖게 만든다.

소요시간:
몽트뢰(Montreux)-츠바이짐멘(Zweisimmen): 1시간 50분

츠바이짐멘(Zweisimmen)-인터라켄 오스트(Interlaken Ost): 1시간 10분
인터라켄 오스트(Interlaken Ost)-루체른(Luzern): 2시간

요금:
스위스 패스 소지시 무료
예약비: CHF 8 (예약 추천)
VIP석은 예약 필수: CHF 15

Rail Center GoldenPass Services
CP 1426
CH-1820 Montreux
Tel. 0900 245 245 (CHF 1. --/min.)
Tel. +41 840 245 245
info@mob.ch
www.goldenpass.ch

4. 빌헬름텔 특급 Wilhelm Tell Express

루체른(Luzern) – 플뤼에렌(Flüelen) – 로까르노(Locarno)/루가노(Lugano)
빌헬름텔 특급은 단순한 파노라마 루트가 아니다. 유람선과 기차가 함께 어우러져 중앙 스위스와 티치노(Ticino) 지역의 근사한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빌헬름텔 특급의 여정 중, 어떤 곳이 하이라이트인지 콕 집어 말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루체른 호수를 유유히 둘러보는 3시간짜리 유람선 코스도, 유명한 고타르드(Gotthard) 철도를 달리는 기차 여정도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임팩트있는 파노라마를 보여준다. 물론, 속도가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이 특급 구간은 상상 너머의 다채로운 여정을 이어가며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확신하게 해 준다. 루체른의 선착장에서 역사적인 증기선에 오른 후, 벨에포끄 양식의 선상 레스토랑에서 3 코스 런치를 즐기며 스위스 연맹이 탄생한 뤼틀리(Rütli) 들판, 쉴러 스톤(Schiler Stone), 텔 채플(Tell's Chapel)과 같은 역사적인 장소들을 둘러볼 수 있다. 플뤼에렌(Flüelen)에서 1등석 파노라마 기차에 올라 티치노로 여정을 계속하게 된다. 해발고도 470m에서 1100m까지의 여정을 이어가며 고도를 높이던 기차는 장장 15km나 되는 고타르드 터널의 심연 속으로 빠져든다. 10년 동안 200여명의 목숨을 희생해가며 만들어진 19세기의 터널 속에서 정적과 암흑을 체험할 수 있다. 이 어둠의 끝에서 기차는 햇살 가득한 알프스 남부로 빠져 나오는 드라마틱한 순간을 선사한다.

소요시간:
루체른(Luzern)-플뤼에렌(Flüelen): 유람선 2시간 45분
플뤼에렌(Flüelen)-로까르노(Locarno): 기차 2시간

플뤼에렌(Flüelen)-루가노(Lugano): 기차 2시간 15분 (벨린쪼나 Bellinzona에서 환승)

요금:
스위스 패스 소지시 무료(단, 스위스 패스 2등석 소지시 1등석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차액 발생).
예약비: CHF 39 (예약 필수)

SBB
Wilhelm Tell Express
Tel +41 (0)900 300 300 (CHF 1.19/Min. from the Swiss fixed-line network)
www.sbb.ch/tellexpress

5. 프리 알파인 익스프레스 Pre-Alpine Express

장크트 갈렌(St. Gallen) – 루체른(Luzern)
스위스의 "부드러운" 면모를 보여주는 루트로, 스위스의 전형적인 봉우리와 깊은 계곡과는 다른 초록 언덕과 그림같은 마을, 향긋한 과수원의 파노라마를 펼쳐낸다.

프리 알파인 익스프레스 역시 특정 구간을 최대한 빨리 연결하고자 디자인된 기차가 아니다. 장트갈렌에서 루체른까지 이어지는 여정 동안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충분한 시간이다. 볼거리가 엄청 많은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도원 도서관이 있는 장크트 갈렌을 출발한 열차는 인접한 아펜첼(Appenzell) 칸톤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초원 가득한 파노라마와 웅장한 알프슈타인(Alpstein) 산맥의 풍경을 선사한다. 장크트 갈렌 근교에서는 99m나 되는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철교, 지터 비아둑트(Sitter viaduct)를 지나게 된다. 동화책에서 나오는 듯한 이상적인 마을, 토겐부르그(Toggenburg)를 지나면서는 구릉지대와 정겨운 목가적 마을들이 파노라마 창문을 따라 그림같이 흘러간다. 쿠어피르슈텐(Churfirsten) 봉우리가 알프스 전지대의 파노라마를 완벽하게 그려낸다. 취리히 호수 동쪽에 있는 라퍼스빌(Rapperswil)에 하차해 볼 것을 권한다. 매력 넘치는 구시가를 따라 산책을 즐기기 좋다.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성곽에서 취리히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파노라마를 즐기고 호숫가에서 아이스크림이나 맥주를 한 잔 하기도 좋다. 잠깐의 쉼이지만 중앙 스위스로 향하기 전, 기분 좋은 휴식이 되어준다. 프리 알파인 익스프레스 한 가운데에는 두 대의 초현대식 자동 판매기가 있다. 뜨겁거나 차가운 음료는 물론 다양한 스낵도 갖추고 있다.

소요시간:
장크트 갈렌(St. Gallen)-루체른(Luzern): 2시간 15분

요금:
스위스 패스 소지시 무료
예약 필요 없음. 자유롭게 착석.

Schweizerische Südostbahn AG
Bahnhofplatz 1a
9001 St.Gallen
Tel. +41 (0)71 228 23 23
info@voralpen-express.ch
www.voralpen-express.ch

6. 레기오엑스프레스(RegioExpress) 루체른(Luzern)-베른(Bern) / 뢰취베르거(Lötschberger)

루체른(Luzern) – 베른(Bern) – 브리그(Brig)

물론, 더 빠른 시간 내에 직행으로 연결하는 기차편도 많이 있다. 하지만 좀 더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자 한다면 꼭 한 번 타 봐야 하는 기차다. 빙 돌아 가는 여정 중 탄성을 자아내는 파노라마가 자주 등장하니 말이다.

루체른과 베른 사이를 달리면서는 엔틀레부흐(Entlebuch)를 지나게 되는데, 2001년에 유네스코 생물 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공원이다. 손대지 않은 습지와 개울, 독특한 식물과 동물이 모여 사는 곳이다. 에멘탈(Emmental) 계곡을 굽이굽이 달리면서는 그 초록 파노라마는 물론, 개성있는 널찍한 지붕이 인상적인 농가와 그림같은 들판,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는 소 떼를 감상할 수 있다. 스위스의 맛있는 비스킷에 관심이 있다면 트루브샤헨(Trubschachen) 역에 있는 캄블리(Kambly) 비스킷 컴퍼니 공장을 견학해 보아도 좋다. 루체른이나 베른에서 캄블리 공장까지 이어지는 캄블리 트레인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행되니 이 기차를 타 보아도 좋다.
베른에서 다시 시작되는 여정은 발레(Valais)로 이어지는데, 현재 시간을 단축학 위해 만들어진 뢰취베르그 베이스 터널을 지나는 대신, 100년 전에 이용되던 산 속을 따라 이어지는 루트를 달려 브리그에 도착하게 된다. 265m 길이의 칸더 비아둑트(Kander viaduct) 다리도 인상적이다.

소요시간:
루체른(Luzern)-베른(Bern): 1시간 29분
베른(Bern)-브리그(Brig): 1시간 45분
환승 시간을 포함한 총 소요시간: 3시간 27분

요금:
스위스 패스 소지시 무료
루체른-베른 구간: 예약 필요 없음. 자유롭게 착석.
베른-브리그 구간: 기차 탑승 전날 15시까지 예약 가능. 1인당 CHF 5

BLS AG

Genfergasse 11
3001 Bern
Tel. +41 (0)58 327 27 27
info@bls.ch
www.bls.ch/luzern-bern

7. 융프라우 철도 Jungfrau Railway

인터라켄(Interlaken)

탑 오브 유럽(Top of Europe), 융프라우요흐(Jungfraujoch)로 향하는 여정은 스위스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유명하다. 유럽의 정상에 올라서면 알프스 세계가 발치 아래로 펼쳐지는 장관의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융프라우요흐를 정복하자면 엄청난 기술과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힘든 일은 전문 등반가들에게 맡겨 두고, 인터라켄 오스트(Interlaken Ost) 역에서 출발하는 기차에 오르면 된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기차역(3454m)까지 기막힌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만년설과 빙하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지금까지도 등반가들에게 전설이자 꿈이 되고 있는 아이거(Eiger) 북벽의 웅장한 그림도 빼 놓을 수 없다. 알프스에서 가장 긴 빙하(23km)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알레취 빙하(Aletschgletscher)의 파노라마도 선사한다. 융프라우 철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에 오픈한 인상적인 전시, "알파인 센세이션(Alpine Sensation)"에서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소요시간:

인터라켄(Interlaken)-라우터브루넨(Lauterbrunnen): 20분
라우터브루넨(Lauterbrunnen)-클라이네 샤이덱(Kleine Scheidegg): 43분
클라이네 샤이덱(Kleine Scheidegg)-융프라우요흐(Jungfraujoch): 52분
환승시간을 포함한 총 소요시간: 2시간 17분

요금:

인터라켄 오스트(Interlaken Ost)부터 이용시 왕복 1등석 CHF 212, 2등석 CHF 197.60
라우터브루넨(Lauterbrunnen)에서 출발해 돌아올 때는 그린델발트(Grindelwald)행 이용시(혹은 반대로) 왕복 CHF 180.60 (스위스 패스 소지시 25% 할인)
예약: 2014년 3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클라이네 샤이덱에서 출발하는 기차편에 한해 보다 편안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다.

Jungfraubahnen / Rail Info
Harderstrasse 14
3800 Interlaken
Tel. +41 (0)33 828 72 33

Fax +41 (0)33 828 72 60
info@jungfrau.ch
www.jungfrau.ch

8. 라보 라인 Lavaux Line

제네바(Geneva) – 브리그(Brig)

제네바에서 브리그까지 향하는 기차 안에서 라보(Lavaux) 포도밭의 낭만적인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 2007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라보 포도밭은 로잔(Lausanne)과 몽트뢰(Montreux) 사이를 더 없이 로맨틱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은 "와인은 병입된 시 한 편이다(Wine is bottled poetry)"라고 했다. 스위스에서 머무는 동안 그의 작품, '보물섬'을 탈고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레만호의 그림같은 풍경은 보지 못했지만 말이다. 만일 그가 레만호를 찾았더라면 와인이 병입되기 전, 포도가 자라는 과정도 한 편의 시같다는 것을 발견했을텐데 말이다. 라보는 스위스 최대의 와인 생산지이다. 많은 여행자들이 여유롭게 포도밭을 거닐며 와인 테이스팅을 즐기는 곳이기도 하다. 중세 와인 마을의 역사적인 셀러는 와인 애호가들을 설레게 만들기 충분하다. 제네바에서 브리그까지 향하는 동안 와인밭이 볼거리의 전부는 아니다. 올림픽의 도시 로잔(Lausanne), 세계적인 재즈 페스티벌로 유명한 몽트뢰(Montreux), 생 베르나르 고개(St. Bernard Pass)로 진입하는 입구인 마티니(Martigny) 등 아름다운 볼거리로 가득하다. 브리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시옹(Sion)과 시에르(Sierre) 사이의 생 레오나르(St. Leonard) 호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지하 호수로, 보트를 타고 탐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흥미로운 체험이 되어준다.

소요시간:
제네바(Geneva)-브리그(Brig): 2시간 29분

요금:
스위스 패스 소지시 무료
예약 필요 없음. 자유롭게 착석.

Swiss Travel System AG
Limmatstrasse 23
8005 Zürich
Tel. +41 (0)44 225 80 40
info@swisstravelsystem.com
www.swisstravelsystem.com

9. 쥐라 풋 라인(Jura Foot Line)

바젤(Basel) – 제네바(Geneva)

스위스의 시계 계곡을 가로지르는 기차로, 스위스 독어권과 불어권의 대도시 두 곳을 연결해 준다. 그 사이로는 정겨운 호수마을과 완만한 쥐라 구릉지대가 펼쳐진다.

바젤부터 제네바까지의 여정은 스위스를 대표하는 파노라마 기차 코스로 알려져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라인(Rhine) 강과 레만호 사이의 사랑스러운 풍경과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루트다. 쥐라 풋 라인은 쥐라 산맥의 남쪽을 따라 여정을 이어가며 모르쥬(Morges), 이베르동 레 뱅(Yverdon-les-Bains), 뉴샤텔(Neuchâtel)같은 매력 넘치는 마을을 지난다. 이런 마을들에서는 평화로운 선술집과 미식 레스토랑이 여행자들의 발길을 붙잡기도 한다. 언덕에서는 스위스의 유일한 품종의 말, 프라이베르거(Freiberger)가 모여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다. 비엘(Biel), 무어텐(Murten), 뉴샤텔(Neuchâtel) 호수 세 개를 보여주는 파노라마가 이 루트의 하이라이트다. 스위스 시계 애호가라면 비엘(Biel), 르 로클(Le Locle),라쇼드퐁(La Chaux-de-Fonds), 제네바(Geneva)가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시계도시다. 기차 내에는 식당칸이 있어 낭만적인 풍경을 감상하며 식사를 즐기기 좋다.

소요시간:

바젤(Basel)-제네바(Geneva): 총 2시간 39분

요금:

스위스 패스 소지시 무료.

예약: 1등석의 경우 예약 가능 CHF 5

Swiss Travel System AG
Limmatstrasse 23
8005 Zürich
Tel. +41 (0)44 225 80 40
info@swisstravelsystem.com
www.swisstravelsystem.com

10. 쓰리 시티 라인 Three City Line

루체른(Luzern) – 쿠어(Chur)

루체른과 쿠어 사이에는 취리히(Zurich)를 포함해 상당히 많은 볼거리가 있다. 루체른, 취리히, 쿠어 세 도시를 연결하며 분주하면서도 세련된 멋을 풍기는 여정을 선사한다.

루체른에서 쿠어로 향하는 기차는 2시간이 조금 넘게 소요되지만, 중간에 하차할 가능성이 더 높은 기차다. 이 루트가 조금 더 돌아가긴 하지만, 루체른에서 쿠어까지 향하는 직행 기차를 탄다면 놓치는

볼거리가 너무 많아 아쉬울테다. 도심지와 시골의 풍경이 대조를 이루며 근사한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루체른에서 출발한 기차는 스위스 최대의 도시이자 다채로운 문화가 살아있는 취리히로 향한다. 취리히에 잠시 내려 그 세련된 문화를 체험해 보아도 좋다. 기차는 패피콘(Pfäffikon), 발렌(Walen) 호수, 퀸텐(Quinten)을 지나 자르간스(Sargans)로 이어지고, 와인 생산지인 뷘드너 헤르샤프트(Bündner Herrschaft) 통과한다. 마침내 기차는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그라우뷘덴(Graubünden) 주의 주도인 쿠어(Chur)로 이어진다.

소요시간:
루체른(Luzern)-취리히(Zurich): 46분
취리히(Zurich)-쿠어(Chur): 1시간 15분

요금:
스위스 패스 소지시 무료.
예약: 1등석의 경우 예약 가능 CHF 5

Swiss Travel System AG
Limmatstrasse 23
8005 Zürich
Tel. +41 (0)44 225 80 40
info@swisstravelsystem.com
www.swisstravelsystem.com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